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2010 경상남도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공모전

### <입선작>

**작품명:** 홍의장군 광재우

**작가명:** 김경환

**기획의도:** 한신대학교 국사학과 부전공자로서 역사에 관심이 워낙 많았으며, 이외에도 경상도 김해시 성주군에 본적이 있기에 경상도에 관심이 많았다. 더불어 글쓰기가 취미이기에 평소 좋아하던 광재우에 대한 일화를 드라마로 만드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또한 한국 국사를 쉽게 알리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기에 공모한다.



경남 의령 홍의정은 1922년 이전 육일정으로 개정하여 활동한 것으로 구전되고 있으나 정확한 창립 연대는 확인되지 않음. 1973년 4월 봄에 의령읍 중도리에 정사를 신축하면서 동 지역이 유서 깊은 사적지이기에 홍의(紅衣) 장군 망우당(忘憂堂) 광재우 장군의 창의대절(倡義大節)을 기리고자 "홍의정(紅衣亭)"이라 명명하였다.

－ 자료제공 : 구영식, 편집 : 국궁신문 편집실

우리는 임진왜란하면 ‘이순신장군’이 첫 번째로 떠오르곤 한다. 하지만 과연

국란의 상황 해상전 위주로 승리를 갖고 온 이순신 장군의 업적만이 왜란의 종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수많은 유생과 스님, 한반도의 민족이 죽음을 무릅쓰고, 국란을 막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일 것이다. 더 이상 역사는 한 세기의 왕이나 위인을 위주로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구성하였던 사람 하나하나를 통해 만들어져왔다. 이 활극은 그러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드라마는 기본적 배경은 조선의 르네상스로 불리우는 정조시대, 한 열혈 여류작가를 둘러싼 이야기이다. 그 여성은 임진왜란의 내용을 소설로 작성하기 위해 여기저기 떠돌며 소재를 찾던 도중 경상도 의령에서 묘한 남성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임진왜란의 숨겨진 종결자를 찾아 해맨다.

주된 구성은 임진왜란 때 광재우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이나 혹은 그와 관련된 장소를 지키는 사람들을 위주로 기억을 모으고, 이를 재구성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진행된다. 그리고 그의 위업과 명성을 다시 한 번 세상에 알려내는 것이 드라마의 주된 내용이다.

여기서 열혈 여류작가와 같이 여정을 함께하는 묘한남성은 허구로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이지만 둘이 찾는 숨겨진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더불어 묘한남성의 정체는 신선을 꿈꾸던 광재우의 자식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 1# - 열혈 여류작가 탄생, 경상도 의령에서 묘한 남성과 광재우의 담화
  - 임진왜란의 재구성에 꿈을 품은 작가, 광재우 담화[지역 : 경상북도 달성군 구지면 신당동]
- 2# - 광재우에 전략전술1<홍의장군 광재우, 화려한 전략전술>
  - 동서남북으로 나뉜 귀신 같은 전략전술[지역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산, 화왕산성]
- 3# - 광재우에 전략전술2<기습과 매복에 능한 전투방법>
  - 나무 꺾팔로 이정표를 만들고 병사를 매복전[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 4# - 광재우에 전략전술3<지략과 술수에 능한 전투방법>
  - 광재우의 의병만들기 [경상남도 의령군 유곡면(柳谷面) 세간리(世于里)]
- 5# - 광재우의 거병, 굳은 결의<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등장하는 광재우>
  - 노비 등 가족 10여명을 시작으로 의병활동[경상남도 의령군 유곡면(柳谷面) 세간리(世于里)]
- 6# - 관직에 관심을 갖기보단 문무의 수양<광재우의 풍운아적 삶>
  - 과거시험 당시 광재우, 유년기의 광재우[경상남도 의령군 유곡면(柳谷面) 세간리(世于里)]
- 7# - 유쾌한 왜남 광재우<광재우의 전략 중 재미있는 것>
  - 바가지와 관련한 일화, 꿀통과 화약통을 사용한 일화
- 8# - 광재우와 관직, 일생<감옥생활과 친구 이덕령의 죽음, 도인과 같은 삶>

9# - 역사적 광재우의 리더십과 그 모습을 연구한 둘의 로맨스 등

1. 사극으로써 약간은 어렵게 프레임이 짜진 부분도 있지만 이 활극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퓨전극이라는 것이다.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방법은 바로 사투리와 개그 코드이다.

- 이 사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혈 여류작가를 제외하고 모두가 경상도 사투리를 쓰며, 이후 후반으로 가면서 열혈 여류작가도 어설피게남아 사투리를 사용하는 것을 흐름을 가질 것이다.

- 모든 내용은 현대식으로 재구성하며, 의병 역시 군대와 비교하면서 크게 다르지 않게 그릴 예정이다. 더불어 인간적인 면모를 높인 사극으로 역사적 딱딱함보다는 마치 예능프로그램처럼 쉽게 역사에 다가갈 수 있는 노력할 것이다.

- 역사 속 조상의 삶과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다르지 않다. 위엄있게 보이려고 하고, 화려하며 웅장하다고 해도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단순히 조선의 역사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는 바이다.

1#

때는 바야흐로 조선의 르네상스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정조시대! 다양한 문화활동과 세계의 교류가 활발하던 시기 한 작품에 매료된 어린아이는 참된 시대의 역사를 서술하기 위해 열혈 여류작가로서 활동하고자 마음먹는다. 그렇게 성장한 여성 춘희는 20세가 되던 해 집을 나와 무작정 임진왜란을 조사하기 위해 경상도로 향한다. 그리고 현지를 조사하던 도중 경상북도 달성군 구지면 신당동의 한 무덤에서 묘한 남자를 만나게 된다.

이름은 원, 툭툭대는 말투에 친해지기 어려운 성격이지만 춘희가 길잡이를 구하며, 보수까지 준다는 말에 동행하기로 마음먹는다. 하지만 천방지축에 전혀 여성을 배려하지 않는 마초적 성격 때문에 그 여정이 오래이어갈 것같지 않았다. 그러던 도중 원은 열혈 여류작가 춘희에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준다. 그것은 바로 광재우라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원은 홍의장군 광재우에 대한 이야기를 화려했지만 역사 속 꺼진 촛불에 비유하며 이야기해준다.

이 이야기를 들은 춘희는 포기하려는 이 여정에서 그의 이야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광재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된다.

2#

일찍부터 연구를 시작한 두 사람은 광재우에 대한 이야기를 찾기위해 길을 떠나지만 전혀 그 길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던 도중 주막에서 한 스님에 의해 화왕산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결국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산, 화왕산성에 도착하게 된다. 하지만 그 곳에서는 임진왜란에 대해 알 수 있는 그

어떠한 내용도 찾을 수 없었다. 단지 큰 전쟁만 일어났던 장소라는 것을 제외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기록이 없었다.

그때 주막에서 만난 스님을 만나게 되고, 그와 잠시 동안 동행을 하게 된다. 그는 그들에게 완전한 정보를 이야기 하지 않는다. 그리고 밀양·영산·창녕·현풍의 이상한 힌트를 주게 된다. 그들은 그 루트를 통해 광재우의 전투를 생생하게 복원하게 되는데, 때는 서기1597년(선조30년) 7월 왜군의 수륙병진 재침에 모두들 후퇴하였으나 경상도 방어사로 현풍에서 석문산성을 쌓고 있던 광재우 장군은 때는 밀양·영산·창녕·현풍 등 네 고을의 군사를 이끌고 요새지인 창녕의 화왕산성에서 왜장 기요마사를 격파한다는 내용을 알게 된다. 더불어 분신술과도 같은 전략과 빠른 전술에 대한 흥미진진한 전술에 감탄하게 된다.

### 3#

두 주인공은 낙동강유역을 걸으면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넘어진 큰 말뚝이었다. 두 주인공은 이것을 임진왜란에서 사용했음을 가정해서 논리를 펼친다. 춘희는 이것을 통해 왜군을 몰살시키기 위한 매복군의 표식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원은 광재우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며 다른 의미로 해석하기 시작한다. 바로 교란작전의 일환으로 설명한다.

이는 왜군이 전라도로 진격하기위해 이동루트를 파악하면서 말뚝으로 표시하여두었지만 이를 지켜본 광재우가 이 모습을 보면서 말뚝을 진흙 창에 다가 옮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군을 매복시켜 결국 도하하던 왜군을 모두 배고, 이 전투로 왜군 6군은 낙동강 도하를 포기하는 내용이다. 두 사람은 발견한 말뚝을 가지고 그 내용을 추리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덧의 자국을 통해 낙동강 유역에서 강이 낮은 지역에 덧을 만들고 왜군의 배를 좌초시킨 후 매복한 병사를 부려 일제히 화살을 퍼부었고 승리하기도 하였다는 것도 추리한다. 이렇듯 전투에서도 지형과 지략으로 유쾌한 승리를 부각시키는 추리형태로 진행된다.

### 3-2#

여기서는 가상의 인물로 홍의장군의 옷을 입고 싸운 부장의 아들이 나온다. 신출귀몰한 광재우의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림자 무사, 즉 분신을 사용한 전략이었다. 홍의장군은 자신의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의병을 모으는 일이나 혹은 적군에게 두려움, 아군에게는 군 기강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게 되었다. 그렇기에 생각한 이미지가 바로 붉은 갑주와 백마로 한껏 멋을 부렸으며, 스스로 하늘이 내린 붉은 옷의 장군이라는 의미의 '천강 홍의장군(天降紅衣將軍)'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미지는 연승행진으로 더욱 유명해졌으며, 그만큼 많은 의병을 얻기도 하였다. 그 반대로 적군에게는 위험한 존재로 부각되는데, 이에 전투에서 광재우를

죽이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곽재우는 이를 역이용하여 전투에 사용한다. 바로 자신의 붉은 갑주를 만들어 부장 몇몇에게 나누어 주고, 부대를 나누어 신출귀몰한 부대로 착각하게끔 하기도 하였다. 곽재우의 교란전술과 유인, 매복전술에 번번이 당한 왜장들은 홍의장군의 부대는 절대 추격하지 말라 라는 지시까지 내리기도 하였다. 이를 설명해 주는 것이 부장의 아들이다.

여기서 가설도 들어가는데, 젊은 부장의 시점에서 회상하는 형식으로 두려움에 떠는 젊은 장수를 위해 직접 홍의를 수여하는 인간적이며, 엉뚱한 발상의 전략을 보여주는 곽재우의 모습이 잘 나타날 것이다.

#### 4#

시작과 동시에 주인공은 주막에서 한 노인 두 명에게 붙잡혀 있다. 그 노인들은 서로 자신의 아버지에 아버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일화를 알려주는데, 바로 곽재우가 어떻게 의병의 교육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곽재우는 부유한 가정으로써 전쟁이 시작되자 자신의 모든 재산을 투자해서 의병단을 조직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자신의 휘하에 있는 노비와 가족을 시작으로 의병단을 조직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의병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모인 의병은 ‘오합지졸’이었으며, 내란으로 싸움에는 이끌난 왜군과 싸우기에 역부족이었다. 그렇기에 의병에게 전투방법을 알려줌에 있어 어떠한 것에도 두려워함 없이 싸우라는 가르침이었다.

『선조실록』에는 곽재우가 적의 수급을 베는 대신 ‘적군의 배를 갈라 심장을 구워먹었다’는 일화가 전한다. 이는 바로 왜군 역시 인간이며, 공포심을 없애기 위한 교육의 일환이었다.

이외에도 “장님과 멀쩡한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물론 멀쩡한 사람이다. 그런즉 적이 보이면 무조건 숨어라. 숨었다가 가까이 오면 활을 쏘고 또 달려 나가 요격해야 하느니라.”는 가르침과 곽재우가 왜군과 싸우기 위해 가르친 전법 중 100보 이상을 거리를 두고 싸우는 비법 혹은 일본도를 조심하기 위해 두 팔 이상 거리를 두는 지시한 내용 등 기발한 전략전술을 전수하는 모습을 잘 담아냄으로써 곽재우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을 만들 예정이다.

#### 4#

본관은 현풍(玄風), 자는 계수(季綏), 호는 망우당(忘憂堂). 곽재우는 경상도 의령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아버지는 황해도관찰사를 지낸 곽월이며, 어머니는 진주강씨였다. 그의 집안은 부유하였으며,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춘회와 원은 곽재우를 연구하기 위해 경남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를 찾게 된다. 여기서 둘은 한 느티나무 밑의 노인을 만나게 된다. 노인은 그 나무에 대한 일화를 이야기해 주었다. 자신의 할아버지는 ‘이 나무의 울음소리를 듣고 임진왜란에 참여하였다.’는 단서를 두 남녀에게 전해주고 사라진다. 두 남녀는 그 뜻을 찾기위해 해매고 다니던 도중 그 나무의 이름이 ‘현고수’라는 것을 알게 되며,



곽재우가 나무에 복을 걸고 치면서 의병을 모았다는 내용을 알게 된다.

이외에도 여기에서는 곽재우가 거병도중 도둑으로 몰려 감옥생활을 한 일과 거병 전후로 그의 생활, 대화, 일화를 정리하여 추리극을 형성하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곽재우의 새로운 면모를 재조명할 예정이다.

#### 6#

춘희와 원은 시장을 배회하던 도중 이상한 간판을 찾게 된다. 바로 ‘홍의 가구’라는 이름의 가구점이었다. 이에 가구점의 주인에게 물어보니 내용은 바로 곽재우가 전투 시 사용한 궤짝이 바로 여기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었다. 춘희와 원은 여기서 곽재우의 일화를 통해 새로운 내용을 배우게 된다.

하루는 곽재우가 왜군의 진격로에 궤짝을 만들어 두라고 명했다. 이를 발견한 왜적은 궤짝의 쌀을 먹으며, 배나 채우려고 하였다. 하지만 그 속에는 벌통이 놓여있어 성질난 벌떼의 습격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혼쭐이 난 왜군 부대는 며칠 뒤 또 똑같은 궤짝이 길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지난번 벌통사건을 곱씹으며, 이번엔 궤짝을 통째로 불사르고, 안에서 벌들이 죽어가는 소리를 듣기 위해 가까이 붙어있었지만 이번엔 땅이 뒤집히는 소리가 나며 폭발이 일어나 왜병들 다수가 몰살되었다. 이번엔 벌통이 아니라 화약이 가득 차있던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모두 곽재우의 계략을 잘 보여주는 전술이었다.

더불어 하루는 곽재우가 매달고 다니던 바가지와 똑같지만 이를 매우 무겁게 만들어 왜군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떨어트려 놓음으로 의병대의 두려움을 만들어 낸 전략 전술도 다름으로써 곽재우가 얼마나 유쾌한 전투를 벌였는지 잘 보여줄 예정이다.

#### 7#

본관은 현풍(玄風), 자는 계수(季綏), 호는 망우당(忘憂堂). 곽재우는 경상도 의령에서 출생하였다. 아버지는 황해도관찰사를 지낸 곽월이며, 어머니는 진주강씨였다. 그는 5살때 모친을 잃고, 외가에서 삶을 살았으며, 문무에 뛰어났던 재능과는 달리 그의 뜻은 벼슬길에 있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 과거시험을 보게 되었고, 주체였던 ‘당 태종이 대궐의 뜰에서 무술을 가르친 일을 론함’에서 1585년(선조 18) 별시 문과에 급제하였다. 하지만 “군주가 문약하면 나라가 위태롭다. 문무를 겸해야 하는 법이니 당 태종은 아주 잘했다.”는 부분에서 당시 임금이었던 선조는 그의 시험지를 둘러보다가 ‘문약’이라는 것은 시나 그림 따위를 좋아하고 무는 돌보지 않은 자기를 빗대놓고 조롱한 것이라고 하면서 곽재우를 당장 잡아들이라는 호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더 이상 관직의 길을 포기한 채 고향에서 은둔하면서 지내게 된다.

이 다음 화에서 이어지지만 곽재우는 관직이라는 혼란스러운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 삶을 살았다. 그렇기에 소설가 김성환은 곽재우를 ‘조선에서 가장 멋있게 살다간 인물’로 평가한 바 있다.

#### 8#

문무가 뛰어난 객재우였지만 그가 관직에 나가 있던 시기는 매우 짧다. 1592년 의병을 일으킴으로써 유곡찰방을 시작으로 바로 형조정랑에 제수되었고, 10월에는 절충장군에 승진하여 조방장을 겸하고, 이듬해 12월 성주목사에 임명되어 삼가의 악견산성 등 성지 수축에 열중하다가 1595년 진주목사로 전근되었으나 벼슬을 버리고 현풍 가태로 돌아왔다. 이후 1599년 다시 경상우도방어사에 임명되었으나 상중임을 구실로 나아가지 아니하였고, 그해 9월 경상좌도병마절도사에 제수되었으나 10월에 이르러서야 부임하였고, 이듬해 봄에 병을 이유로 벼슬을 버리고 귀향하자, 사헌부의 탄핵을 받고 영암으로 귀양 갔다가 2년 만에 풀려났다. 그 뒤 현풍 비슬산에 들어가 곡식을 금하고 술빚으로 끼니를 이어가다가, 영산현 남쪽 창암진에 강사를 짓고 망우정(忘憂亭)이라는 현판을 걸고 여생을 보낼 설계를 세웠다. 그러나 다시 조정의 부름을 받고 거절할 수 없어 1604년(선조 37) 찰리사가 되었고, 이어 선산부사로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고 찰리사라는 벼슬마저 사퇴하였다. 이후 10월 절충장군 용양위부호군에 제수되고, 다음달 가선대부 용양위상호군에 승진하였다. 이후에도 광해군의 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벼슬길에 올랐다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궁금하게 여긴 춘희는 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보다 깊이 찾기 위해 나서게 된다. 그러던 도중 백두산 호랑이라고 불리는 김덕령의 친족을 우연찮게 만나게 된다. 객재우와 함께 활동하던 광주 의병장 김덕령은 이몽학의 난에 휩쓸리면서 죽게 된다. 절친한 친구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객재우는 정치권에서 발을 빼고 곡기까지 끊고 도인 행세를 했다. 춘희와 원은 객재우의 방황에 근원을 추리하는 내용을 보여주면서 그 상황상황 엉뚱한 객재우의 모습과 그가 진정 원한 것을 찾는다.

## 1. 춘희의 관점

객재우는 멋지고 우아하며, 긍지 높은 임진왜란의 의병장이라는 관점이 지대하다. 그렇기에 추리할 때, 멋진 모습의 객재우를 생각하기 마련이다. 이는 춘희의 과거 생활이 양반의 자식으로 자라난 것도 영향을 주지만 전형적인 사관을 보여주기도 한다. 멋지고 명예로우며, 위인의 업적은 불변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는 춘희가 상상하는 객재우의 추리상 역시 이를 반영한다. 하지만 원과의 대화와 더불어 경상도의 민중에 삶 속에서 점차 경상도민 속의 객재우를 만들어 나간다.

## 2. 원의 관점

객재우는 건달이며, 전형적인 괴짜라고 생각하는 것이 원의 지배적인 관점이다. 추리 시 춘희와는 달리 구수한 사투리와 거친 마초 같은 모습, 그리고 다양한 발상의 전환과 미리 몇 수를 앞서보는 관점을 꿰뚫는 점을 꼼꼼하게 추리해낸다. 하지만 부정적인 모습도 없지 않기에 춘희와 언제나 다룬다.

더불어 원의 캐릭터는 객재우의 이미지와 비슷하게 형성되면서 객재우와 친족임을 극상에서 서서히 들어날 수 있게 그려낸다.

기본적으로 각 화의 특성상 다르지만 최대 4가지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

①춘희의 상상도 : 상당히 몽환적이며, 우아하고, 아름다우며 위엄 있는 이야기가 주 골조이다.

②원의 상상도 : 마초적이며, 기본적인지만 개그코드가 잘 들어가 있어 즐기면서 볼 수 있다.

③기억을 가진 사람의 상상도 : 원과 춘희가 찾아가는 사람 혹은 만나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광재우의 상상도이다. 최대한 현실적이지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다시 만들어지는 등 다양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원과 춘희의 상상도이기에 완벽한 일화를 그린다기보다는 중간 중간 끊기는 스포일러성 형태의 영상이다.

④광재우에 대한 상상도 : 역사적 고증된 기록을 통해 만들어지는 상상도이다. 이는 보다 올바른 광재우의 내용을 갖고 만들어지는 내용으로 실제 기록이나 첨부 등을 통해 만들어진단.

이 사극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괴짜였던 광재우의 모습과 그 전략·전술에 동참하는 의병의 삶을 있는 그대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멋있거나 화려하고, 굉장한 이야기가 아니라 소소하지만 해학과 유쾌함 그리고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활극이다. 이를 통해 대중에게 알리고 싶은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 1. 개성 있는 캐릭터를 통해 퓨전 활극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의 의미를 두고 있다.

여기서 나오는 광재우는 위엄을 중시한다기 보단 약간 괴짜와 같은 엉뚱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상상하였던 광재우는 귀찮음과 엉뚱한 발상을 갖고 있으며, 장난 끼 넘치는 행동을 가진 사람이었다. 또한 마초 같은 성격까지 다양한 성격의 그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는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또한 춘희 역시 당시 시대상과는 달리 필두에서 프로젝트를 지휘하는 현대여성의 모습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역시 엉뚱하고 덜렁대는 과거 조강지처와 같은 여성상에서 벗어난 여성의 모습이다. 한편으로 원의 경우 책임감이나 문무를 중요시한다기보다 당시 상업과 실학의 급격한 발달의 정조시대에 만들어지는 인간상을 갖고 있다. 그렇기에 돈과 유희를 즐기며, 춘희를 도와주는 조력자적인 역할이 강하다. 이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사극은 보다 유쾌하고 즐거운 생산적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2. 국사관 국사책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그 속의 위인은 난해하고 외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점이다. 최근 국사가 선택과목으로



바깥에 따라 한국사회의 국사교육에 문제에 빨간 등이 켜졌다. 요즘 넘치는 문화 콘텐츠 중 가설을 위주로 서술된 문학서 등으로 역사의 진실보다는 다양성을 많이 알고 있기에 이를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실 국사학과 학생이나 연구원 정도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번 드라마는 젊은이들에게 국사연구의 흥미와 관심을 충분히 끌어올려줄 내용이 담겨있다고 생각된다.

**3. 경제적 불황과 정치적 난국 속에서 가장 필요한 리더십은 유쾌함을 가진 리더십이며, 이를 잘 보여주는 인물은 곽재우라는 점이다.** 요즘 리더십과 연관지어 노무현 정권시절 ‘이순신 리더십’이 부각된 적이 있다. 이는 박정희정부 시절부터 이순신의 리더십을 이끌어와 결과적으로 현시대까지 이미지를 바꾸어온 리더십의 전형이며, 현재는 역사의 필요성에 의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리더십의 전형일 것이다. 하지만 이순신의 리더십과 비교해 곽재우의 리더십은 엉뚱한 발상의 전환일 것이다. 다양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매진 승부수를 던지는 곽재우는 역사 속 여타 장수와는 달리 특별한 개성이 존재한다. 더불어 이는 경상도를 대표하는 리더십의 이미지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바이다.

**4. 역사란 왕과 위대한 몇몇 인물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만들어가는 것이며, 이를 우리도 확실히 인식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5. 경상도의 지역적 특수성과 역사성을 잘 보여주며, 이를 잘 이용한 곽재우 뛰어난 업적을 기리는 의미에서 중요한 작업이라 생각하는 바이다.**

사실 곽재우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크게 부각되는 인물은 아닐 것이다. 권율이나 유성룡, 이순신, 사명대사 등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나마 명맥만을 이어왔지 주된 임진왜란의 종결자로써의 면모는 앞의 위인보다 떨어진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곽재우 장군의 참된 모습을 알아가는 귀중한 시간을 가져보아야 하며, 이는 경상도의 주도하에 지역별 위인을 복구하는 작업을 한다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반드시 이 내용은 본 필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바이다.